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박은혁** · 이응택***

초 록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때의 휴대전화의존이 중2의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과 중3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중1 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1~3차년도 모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남학생 1,146명(49.7%)과 여학생 1,161명(50.3%)으로 총 2,30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 중 주의집중만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종단적 구조관계, KCYPS

*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활용한 것임.

** 명지대학교 강사, 제 1저자

*** 명지대학교 박사수료, 교신저자, samneng@hanmail.net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의 기능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넘어 그 기능이 확장되면서 휴대전화는 이제 현대사회의 필수품(구현영, 2010; 김현주, 황은숙, 2012;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이해경, 2008; 장성화, 2011; 한희진, 윤미선, 2009; Walsh, White & Young, 2008)이 되었다. 이에 따른 휴대전화 보유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7월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600만 명이며(<http://www.itstat.go.kr/home.it>),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85.8%, 중학생 93.2%, 고등학생 94.8%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휴대전화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이며 특히, 중·고생의 경우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한 반면 욕구를 자제하거나 자기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장은경, 최연실, 2010).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행동으로는 주의가 산만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단절을 낳기도 하며, 학교폭력 경험까지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성윤숙, 2006). 특히 교사관계, 학습,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 전반에 문제를 양상하게 되며, 우울/불안, 신체증상, 강박, 정신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이정화, 2010; 고충숙, 2012).

하지만 휴대전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김영민, 임영식, 2012; 성윤숙, 2006; 이예진, 2014;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장석진 외, 2011; 조윤주, 2013; Oshima et al., 2012;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강방글, 신혜정, 2014; 김도연, 양혜정, 2014; 김지혜, 2012; 송미령, 김성영, 2012; 심현진, 이일현, 이현실, 2014; 우수정, 2013; 장석진 외, 2012; 장은경, 최연실, 2010; Ezoe et al., 2009; Jordaan & Surujlal, 2014; Kamibepu & Sugiura, 2005; Toda & Ezoe, 2013).

휴대전화에 의존할수록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성윤숙, 2006),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이예진, 2014; 이은정 외, 2012; 이정화, 2010; 장석진 외,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으로 정신건강을 들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전상민, 2014; 한상훈, 2008; 허균, 2013;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승희, 2010; 김명식, 2008; 김아영, 이명희, 2008;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김정민, 송수지, 2014; 박연숙, 김종립, 이선미, 2012; 신찬환, 박영호, 2005; 오승환, 2009; 이경숙 외, 2011; 이귀옥, 이미리, 2013; 이혜순, 옥지원, 2012; 이희정, 2010; 장성화, 오은정, 2009; 최재빈, 박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최지원, 박영숙, 2011; 최진오, 2010; 하영신, 2007; Chen & Li, 2000). 즉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에 문제를 나타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는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기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은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이은정 외, 2012; 장석진 외, 2011)가 있으나,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동일한 시점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보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횡단적 조사설계(cross-sectional survey design)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종단적 조사설계(longitudinal survey design)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청소년의 2차년도 정신건강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휴대전화의존

휴대전화의존은 휴대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현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초조,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거나 통제력을 상실하여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구현영, 박현숙, 2010; 나은영, 2005; 장석진 외, 2012; 한주리, 허경호, 2004).

2.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1909년 미국정신의학회의 결성 이후 사용된 용어로 원래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기 위해 정신병리학적인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보편적인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최은영, 최인령, 2002).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의하면 정신건강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다(이영호, 박미현, 2011). 임규혁(2001)은 정신건강을 건전한 개인생활의 유지와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성숙한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이경숙, 안황란과 이경희(2011)는 정신건강을 개인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성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며 자신뿐 아니라 주위세계를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권이중(1990)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주어진 환경인 '가정-학교-사회'와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청소년 특유의 내적인 갈등과 경험 사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능력을 가지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으로 사용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 가운데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울, 신체화, 주의집중을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1) 신체증상

김윤주(2002)는 기존 연구에서 신체화가 ‘기질적 병리가 없음에도 신체증상을 제시하고, 그 감각을 증폭하는 현상’ 또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신체증상을 통한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질적 병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신체증상을 통해 표현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은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심각성이 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학적 원인이 불분명한 신체화 증상의 잦은 호소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일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이한주, 서미아, 2010).

2) 우울

우울은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장애(고충숙, 2012; Beck, 1976)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규정한 DSM-IV에 따르면 우울은 불쾌한 기분 또는 절망감, 과민성 또는 비관적인 감정 또는 슬픔과 같은 지속적인 증상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일상 활동에서의 흥미나 기쁨의 상실로 정의된다(김혜원, 2006).

3) 주의집중

James(1890)는 주의집중을 주의를 동시에 여러 대안을 갖는 대상이나 생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명하고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의식의 집중(concentration)또는 초점(focus)이라고 정의하였다. 주의집중은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의식을 모으는 능력으로,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그 자극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주의지속 시간(attention span), 한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주의를 옮길 수 있는 주의 이동(attention shift)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이대식, 황매향, 2011).

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84). 또한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 전반의 교사와의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수업, 규칙 등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왕식, 임영희, 2003). 김신애, 이형실과 임수경(2008)은 학교생활적응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정의를 학교생활에서의 조화와 만족감에 초점을 둔 정의와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적응에 초점을 둔 정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생활에서의 조화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감, 학생의 능동적 참여활동을 포함하는 적응행동으로 정의하였다.

4. 세 변인의 관계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존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정 외, 2012; 장석진 외, 2011).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와 정익중(2012)은 휴대전화 활용유형과 학교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학교부적응은 휴대전화 의존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석진, 송소원과 조민아(2011)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이용정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고 이용이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존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선, 강차연, 2007; 전상민, 2014; 한상훈, 2008; 허균, 2013;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허균(2013)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의 주의집중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가 3차년도 주의

집중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훈(2008)은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비중독군 보다는 의존군이 의존군 보다는 중독군에서 신체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상민(2014)은 휴대전화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휴대전화의존이나 중독적 사용으로 우울해지는 것이지 우울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의존하거나 중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혜선과 강차연(2007)은 휴대폰 과다사용 정도와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휴대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축, 신체화,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승희, 2010; 김명식, 2008; 김아영, 이명희, 2008;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김정민, 송수지, 2014; 박연숙, 김종립, 이선미, 2012; 신찬환, 박영호, 2005; 오승환, 2009; 이경숙 외, 2011; 이귀옥, 이미리, 2013; 이혜순, 옥지원, 2012; 이희정, 2010; 장성화, 오은정, 2009; 최재빈, 박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최지원, 박영숙, 2011; 최진오, 2010; 하영신, 2007; Chen & Li, 2000). 신찬환과 박영호(2005)는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을 공격성, 사회적 위축, 신체화, 우울, 주의집중으로 분류하고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과 송수지(2014)도 중학생의 우울과 주의집중 문제는 청소년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규칙, 교사관계,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장성화와 오은정(2009)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중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여 학교생활이 산만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건강이 매개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중 우울, 신체화, 주의집중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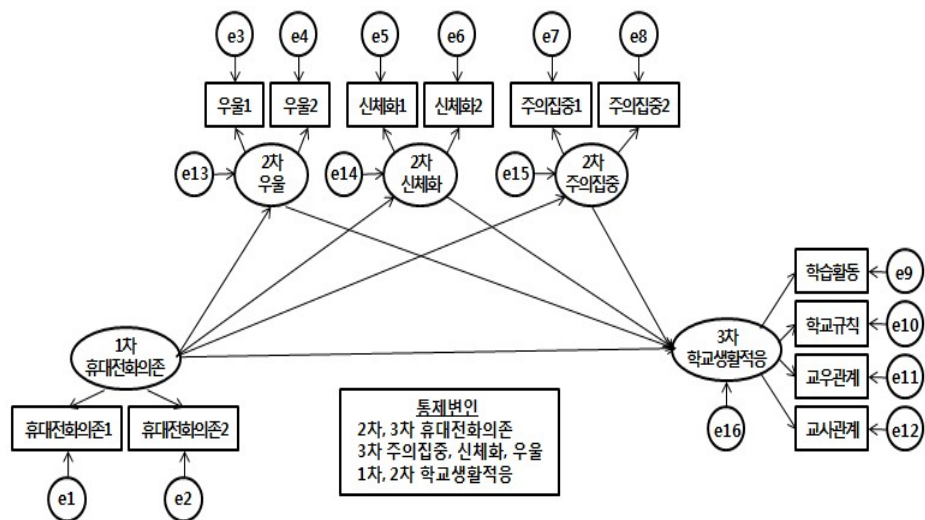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패널 1차(2010년)부터 3차(2012년)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전국의 중학교 1학년 2,315명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되었고 3년 동안 반복 추적하여 설문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반복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대상만을 선택하여

1차, 2차, 3차년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44명을 제외한 2,30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KCYPS)’에서 사용한 척도로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학교생활적응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되었으나 역코딩하여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의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7문항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휴대전화의존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4로 나타났다.

2)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신건강은 휴대전화의존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주의집중(7문항), 신체화(8문항), 우울(10문항) 등 총 25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주의집중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화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피곤하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우울은 '기운이 별로 없다', '외롭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신체화 문제는 높은 수준을 의미하지만, 주의집중은 집중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4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주의집중 .790, 신체화 .862, 우울 .904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항)로 총 20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학습활동은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 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교규칙은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우관계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교사관계는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습활동 5번 문항과 교우관계 4번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0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학습활동 .744, 학교규칙 .789, 교우관계 .539, 교사관계 .84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은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휴대전화의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학교생활적응, 3차년도의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에 따르면 1차년도의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요인도 통제변인으로 설정해야 하나 1차년도 자료에는 정신건강 요인을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

차년도의 정신건강은 제외되었다.

4. 자료 분석절차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amos 18.0을 통해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추정치를 확인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는 χ^2 , NFI,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고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NFI, TLI, CFI의 지수는 .90 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RMSEA는 .1 이하 보통, .08 이하 양호,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지수로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의 평균은 2.055, 2차년도 주의집중은 2.391, 2차년도 신체화는 2.024, 2차년도 우울은 1.932,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은 2.890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차 휴대전화 의존	2차 주의집중	2차 신체화	2차 우울	3차 학교생활 적응
1차 휴대전화의존	1				
2차 주의집중	.236***	1			
2차 신체화	.237***	.407***	1		
2차 우울	.228***	.347***	.606***	1	
3차 학교생활적응	-.116***	-.300***	-.168***	-.210***	1
평균	2.055	2.391	2.024	1.932	2.890
표준편차	.665	.530	.628	.616	.393
왜도	.484	.003	.222	.296	.055
첨도	-.186	.656	-.398	-.278	.661
명	2,159	2,240	2,240	2,240	2,220

* $p<.05$, ** $p<.01$, *** $p<.001$

2.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1)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휴대전화의존,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학교생활적응의 측정변인들이 잘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고 NFI, TLI, CFI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요인간 요인부하량과 상관도는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5이상, 상관도는 .15~.72사이로 나타났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NPAR	CMIN	P	DF	NFI	TLI	CFI	RMSEA
적합지수	46	234.446	.000	44	.973	.961	.978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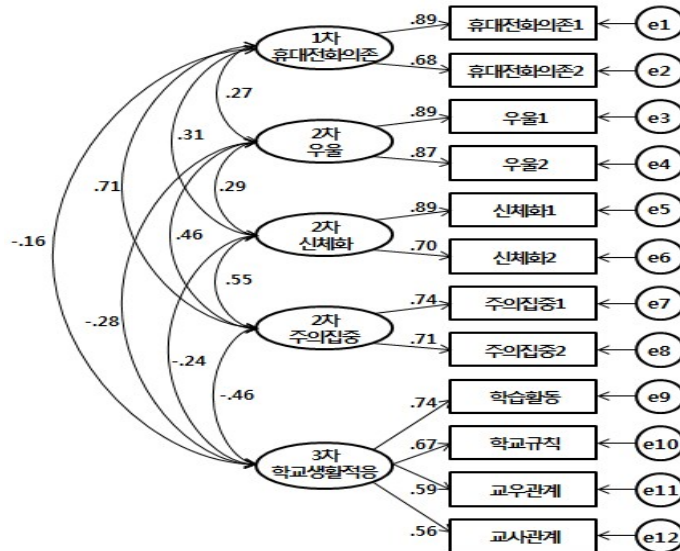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서 나타난 것 같이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년도 신체화, 우울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 주의집중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문제를 유발시키지만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2차년도 주의집중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을 완전매개하여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공식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Z = -2.369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NPAR	CMIN	P	DF	NFI	TLI	CFI	RMSEA
적합지수	104	842.169	.000	105	.947	.916	.953	.055

표 4
연구모형 결과

경로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휴대전화의존 -> 우울	.310	.332	.024	12,800 ^{***}
휴대전화의존 -> 신체화	.347	.359	.025	13,648 ^{***}
휴대전화의존 -> 주의집중	.300	.405	.022	13,880 ^{***}
휴대전화의존 -> 학교생활적응	.036	.054	.026	1,374
우울 -> 학교생활적응	.018	.025	.028	.641
신체화 -> 학교생활적응	-.013	-.019	.031	-.430
주의집중 -> 학교생활적응	-.089	-.100	.037	-2,399 [*]

* $p < .05$, ** $p < .01$, *** $p < .001$

표 5
Sobel 검정 결과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Z
휴대전화의존->주의집중 ->학교생활적응	.015	.054	-.039	-2,369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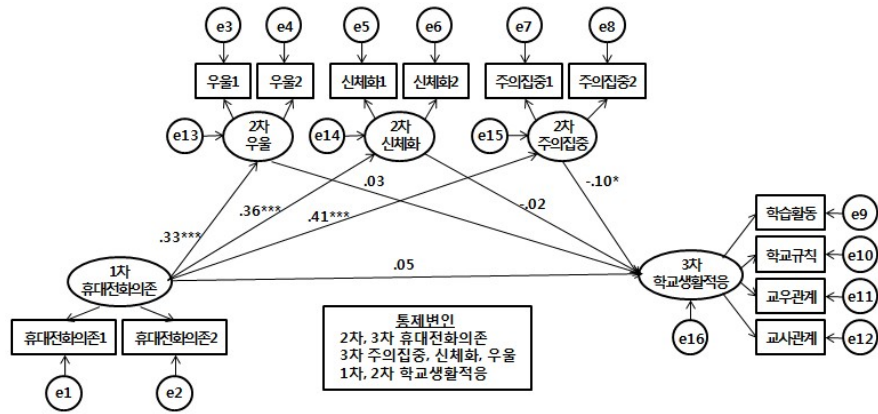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V. 결 론

본 연구는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2차년도 정신건강이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은정 외, 2012; 장석진 외, 2011)와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휴대전화의존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다른 매개변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횡단적 측면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 비중독군 보다는 의존군이, 의존군보다는 중독군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한상훈, 2008)와 휴대전화의존은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고충숙, 2012; 전상민, 2014; 한상훈, 2008; 허균, 2013;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와 비슷한 맥락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잠을 못 자게 되면서 주의집중 문제, 신체적 문제, 우울한 감정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의존과 관련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특히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처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차년도의 정신건강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데 제한점을 지닌다. 1차년도의 정신건강이 2차년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 중 신체화와 우울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이나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신찬환, 박영호, 2005; 이한주, 서미아, 2010)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나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차이는 횡단적 자료가 아닌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횡단적 측면에서 신체화나 우울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종단적 관계에서 신체화와 우울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차년도 휴대전화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주의집중은 완전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의존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주의집중 결핍을 야기 시키면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만든다고 보다는 주의집중의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부적응이 초래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추후 주의집중의 문제가 동반되고 이러한 주의집중 문제는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의존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의 시급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초등학교들의 휴대전화 과다사용이나 의존은 중학생 시기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행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

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연구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 휴대전화에 의존하거나 과다사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최근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과잉적 의존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소수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계 규명은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기 휴대전화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의 경우 휴대전화의존으로 기인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여 올바른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2차년도 주의집중을 매개로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원인으로는 주의집중의 문제를 동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지 또한 주의집중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셋째, 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중학생 시기 전체에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매개변인인 주의집중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예측변인으로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한 주의집중 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대전화의존과 또 다른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진행된다면 휴대전화의존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세 요인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여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방글, 신혜정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8), 213-241.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고충숙 (2012).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 포럼**, 30, 8-36.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84). **교육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 구현영 (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3), 203-210.
- 구현영, 박현숙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1), 56-65.
- 권이중 (1990). **교육사회학**. 서울: 배영사.
- 김도연, 양혜정 (2014). 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169-197.
- 김명식 (2008). 일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 645-658.
- 김신애, 이형실, 임수경 (2008).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 문제의 관련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1-17.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영민, 임영식 (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왕식, 임영희 (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및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7(3), 123-148.
- 김윤주 (2002). **신체화에 있어 문화심리학적 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청각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불안, 우울, 그리고

- 학교적응 간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9(4), 231-247.
- 김정민, 송수지 (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김지혜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97-120.
- 김현주, 황은숙 (2012). 또래애착과 충동성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2, 7-38.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김혜원 (2006). **청소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생활사건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은영 (2005). 청소년의 이동전화 애착 이용, 효과 지각 및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2002·2004년 서울·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6), 198-232.
- 박연숙, 김종립, 이선미 (2012). 거주형태에 따른 여고생들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3), 183-195.
- 성윤숙 (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2), 291-321.
- 성윤숙 (2008).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이용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4), 181-197.
- 송미령, 김성영 (2012). 중학생의 또래 애착, 자아탄력성, 휴대폰 의존과의 관계. **청소년 문화포럼**, 32, 65-89.
- 신찬환, 박영호 (2005).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교육이론과실천**, 15, 187-212.
- 심현진, 이일현, 이현실 (2014). 일반긴장이론(GST)을 이용한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355-363.
-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영향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학교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6), 583-590.
- 이경숙, 안황란, 이경희 (2011). 초등학교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3), 271-280.
- 이귀옥, 이미리 (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대식, 황매향 (2011). **학습부진학생의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이영호, 박미현 (2011). **관계의 미학, TA**. 서울: 학지사.
- 이예진 (2014). 전환기 청소년의 개인특성, 또래애착 및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52(5), 519-528.
-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4), 189-214.
- 이정화 (2010).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휴대폰 사용현황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북아문화연구**, 25, 337-351.
- 이한주, 서미아 (2010).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3(1), 79-87.
- 이해경 (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이혜순, 옥지원 (2012).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438-446.
- 이희정 (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우울,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3, 143-171.
- 임규혁 (2001).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분석. **교육문제연구**, 14, 1-23.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성화 (2011).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초등학교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설명력.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1), 291-310.
- 장성화, 오은정 (2009).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과 우울, 불안,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1(2), 259-268.
- 장은경, 최연실 (2010). 중·고생 휴대전화 고의존군과 저의존군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생활 변인, 가족기능의 차이.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93-212.
- 전상민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2(3), 301-312.
- 조운주 (2013).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과 학습행동 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1(2), 253-261.
- 최은영, 최인령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최재빈, 박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력간의 상관관계. **가정의학회지**, 20(9), 1144-1151.
- 최지원, 박영숙 (2011). 학교부적응청소년의 MMPI-A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수준. **청소년학연구**, 18(9), 265-284.
- 최진오 (2010). 초등학생들의 ADHD 성향과 학교유대성간의 관계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179-198.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 통계**.
- 하영신 (2007).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한상훈 (2008).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 유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1), 403-420.
- 한주리, 허경호 (2004). 이동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8(6), 138-165.
- 한희진, 윤미선 (2009).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교육문제연구**, 34, 81-100.
- 허균 (2013).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861-879.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Chen, X., & Li, B. (2000). Depressed mood in Chinese children: Development significance for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4), 472-479.
- Ezoe, S., Toda, M., Yoshimura, K., Naritomi, A., Den, R., & Morimoto, K. (2009). Relationships of personality and lifestyle with mobile phone dependence among female nursing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2), 231-238.
- James, W. (1983).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ordaan, D. B., & Surujlal, J. (2014). Factors contributing to mobile phone dependence.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21), 371-376.
- Kamibeppu, K., & Sugiura, H. (2005). Impact of the mobile phone on junior high-school students' friendships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Cyber psychology & Behavior*, 8(2), 121-130.
- Oshima, N., Nishida, A., Shimodera, S., Tochigi, M., Ando, S., Yamasaki, S. et al. (2012). The suicidal feelings, self-injury, and mobile phone use after lights out in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7(9), 1023-1030.
- Sara Thomée, Annika Härenstam, Mats Hagberg (2011). Mobile phone use and stress, sleep disturbanc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a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1, 66-76.
- Toda, M., & Ezoe, S. (2013). Multifactorial study of mobile phone dependence in medical students: Relationship to health-related lifestyle, Type A behavior, and depressive state. *Ope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 99-103.
- Walsh, S. P., White, K. M., & Young, R. M. (2008). Over-connected?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n youth and their mobile phones. *Journal of Adolescence*, 31(1), 77-92.
- <http://www.itstat.go.kr/home.it>에서 2014년 8월 26일 인출.

ABSTRACT

The longitudina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obile phone dependency, mental health, and school life adjustment

Park, Eunhyouk* · Lee, Eungtaek**

This study, by making use of longitudinal data, intended to identify whether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rst year would influence mental health issues (attention, somatization & depression) in the second year and the school life adjustment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whether mental health would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rst year had a static influence on all the mental health issues (attention, somatization & depression) in the second year. Secondly,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rst year did not affect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third year. Thirdly,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rst year had a mediating effect on only the mental health issue of attention in the second year from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third year.

These results formed the basis of implications and the meaning taken from this study.

Key Words: mobile phone dependency, mental health, school life adjustment, longitudinal structural relationship, kcyys

투고일: 2014. 11. 30, 심사일: 2014. 2. 3, 심사완료일: 2014. 2. 9

* Myongji University Lecturer

** Myongji University Doctor Completion